

[부산 해운대 · 기장(갑) 개편대회 노무현 후보 축사]

<부정부패없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작스레 마련한 잔치라 준비도 제대로 됐는지 손님들도 많이 오실 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함께 성원해 주시니 정말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

최인호 조직책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궐선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중앙당의 최고위원님들, 의원님들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지원을 나가야합니다. 그런데 각별히 우리 부산을 선택하고 해운대를 선택해서 참석해주신 정대철최고위원님, 김근태고문님, 김하중의원님, 임종석 의원님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다른 행사를 앞질러서 불쑥 나온 것 같습니다. 40분에는 제주도로 가야해서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요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알고 계실테고,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생각해보면 남의 탓도 있는거 같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후보를 하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들도 차마 기대

하지 않으셨던지, 저도 준비가 좀 부신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슴을 졸이게 하는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결정적인 실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군대를 안 보냈다면지, 이중국적이었다면지, 이런 결정적인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아직 제겐 밑천이 남아있습니다.

제 밑천이 뭘니까? 신념, 소신, 원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용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밑천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이 밑천으로 노풍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밑천이 살아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성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꼭 성공해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만두신 이후 부산은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으면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야하는데, 기분 좋은 일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희망이 사라진 이 부산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성원해주십시오.

최인호 조직책이 조금 있다가 개편대회를 거쳐서 위원장이 되고, 이번 8.8 보선에 후보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최인호 후보는 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거물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계시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물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거물들이 우리 부산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거물이 아니고 새물이 나와야합니다.

새물이 나와서 낡은 정치를 쓸어내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짜증을 주는 정치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새물이 나와서 만들어야합니다. 최인호 후보는 새물입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총학생회장도 했습니다.

돈이 많아야합니까?

사장은 자기 살림을 잘산 사람이고. 시민운동 한 사람은 우리들 살림을 잘살핀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살림이 아니고 우리들 살림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공부가 아니라 우리학교, 우리부산,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몸을 던질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맡아나가야 국가살림이 잘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내 호주머니 부지런히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호주머니를 부지런히 챙겨 줄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입니다.

그러나 진짜 일꾼은 최인호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이 참 죄송하게됐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당 때도 공화당 때도 유신 때도 민주당이 싸웠습니다.

군사독재와 싸워서 군사정권을 물리치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열어낸 것

도 많은 젊은 청년, 학생들과 재야인사들과 함께 민주당이 싸워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참 소중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도 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해서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참 좋은 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우리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죽 쭉고 있습니다. 인기가 땅바닥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 부정 때문입니다. 그죠?

부정부패만 아니었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야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돌아가면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넘겨줘야 하는데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금년 12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부정부패가 없는 정부가 되어야합니다. 우리경제를 튼튼하게 해서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 4강, 8강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원리를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생활은 불안해졌습니다. 이것도 고쳐 나가야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다음정부가 해야합니다. 해야하는데 한나라당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12월 정권은 한나라당이 잡게 되어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과연 이 부정부패가 없어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국민은 이제 부패 없는 정권을 바라고 있습니다.

95년 연말, 96년 초에 한나라당이 국가예산 1천 200억원 이나 들어다가 선거자금으로 써버렸습니다.

다 아시지요?

황령입니다. 절도입니다.

그래서 당이 전부 고루고루 갈라 쪼갠기 때문에 범죄정당입니다.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재판이 무르익어 가는 대로 한나라당을 상대로 장물반환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설혹 이회창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다음대통령은 반드시 손해배상청구, 장물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다 못 물어내고 한나라당은 파산합니다. 어떻게 파산할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자기 당을 향해서 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거죠? 그래서 한나라당은 깨끗한 정부를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들통이 나서 차마 정권을 달라는 소리를 하기가 참으로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수교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방해하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허용했기때문이고, 재벌개혁을 게을리하고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튼튼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시장을 개혁해야하고, 기업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 기업이 출자총액제한이라든지, 집단소송제 라든지, 집중투표제 라든지 등등 복잡하고 어??이름이 붙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의 개혁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회창후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혁을 게을리하고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다시 위험해 질수도 있고, 우리경제가 경쟁력 4강, 8강으로 가는 길은 불가능해

집니다. 경제를 살리자면 절대로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주어서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이고, 한나라당이 반대해온 정책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대화입니다.

20년뒤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것이나.

그때 지난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나?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남북대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잘되면 20년 후의 한국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남북관계가 실패하면 어쩌면 오늘의 중동처럼 밤낮 전쟁에 시달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게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는 두가지입니다. 안보와 평화 통일입니다.

안보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안보는 유사시에 언제든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군비를 확실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안보는 국방은 거뜬히 하되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안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자 이것은 말이 같은데 '전쟁은 일어나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죽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야죠. 자기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국방을 얘기하고 전쟁을 얘기해야지 자기자식은 빼돌려놓고 남의 아이들만 죽으라고 전쟁이 일어나도 좋다. 전쟁도 불사하자, 왜 확전하지 않느냐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한나라당식의 아니 이회창식의 안보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국가의 안전을 맡기시겠습니까?

앞으로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제가 조금 앞장서서 당을 끌고 가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저는 평당원으로 곧 돌아갑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개혁합니다.

저비용정치를 할것입니다.

이번 선거때부터 바로 저비용선거를 치루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월드컵만큼이나 재미있는 게임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선거 하지않습니까? 이회창과 노무현.

70대를 넘겨다보는 귀족대표와 50대의 서민대표가 나라의 정권을 놓고 한 판 붙겠습니까?

정당의 수위, 국회의원 비서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제왕적후보와 평당원으로 돌아간 민주적후보 노무현이 대결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제 낡은 정치를 그대로 가져갈것이나? 새로운 정치를 할것이나의 대결입니다.

12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기자면 노풍이 한번 더 붙어야합니다.

노풍은 부산에서 붙어야합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일으켜주십시오.

하늘이 아니고 땅에서 붙어야합니다. 크게 높은 소리가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여러분께서 바람을 일으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